

‘토크시네마 · 산골토크’ 시선 집중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영화 · 문학 · 건축 등 총 6개 주제 15인 전문가들과 대담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개최되는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매년 다채로운 주제로 관객들에게 열린 반응을 얻고 있는 토크 프로그램 <토크시네마>와 <산골토크>를 소개한다.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의 대표 토크 프로그램인 <토크시네마>는 총 6개의 주제 아래 해당 분야 15인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먼저, 총 920만 명 관객을 동원한 영화 <내부자들>의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와 함께한다. 하이브미디어코프의 시작을 알렸던 창립자인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 상영 후, 김원국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와 김성훈 ‘씨네21’ 디지털콘텐츠본부장이 ‘하이브미디어코프의 시작과 현재’라는 주제로 영화팬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올해 신설된 2개의 감독 특집 프로그램으로 무주를 찾은 엄태화, 박세영 감독의 <토크시네마>도 진행된다. 엄태화 감독과 주성철 씨네플레이 편집장은 엄태화 감독의 초기 단편부터 최근작인 뮤직비디오까지, 감독이 구축해온 영화 세계의 진화를 알아본다. 또한 박세영 감독은 김병규 평론가와 함께 박세영 감독의 최신 단편을 조명하며 감독이 만들어갈 새로운 영화 세계에 대해 들여다본다.

뿐만 아니라 ‘무주산골영화제’의 메인 공간인 무주드나무운동장을 설계한 故 정기용 건축가의 무주 공공 건축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故 정기용 건축가의 아들인 정구노 건축가를 비롯해 정재은 감독, 정다운 감독, 형인 EBS 프로듀서가 자리해 故 정기용 건축가의 공공 건축 프로젝트 30주년을 기념하며, 건축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토크시네마 참여 게스트 15인

이외에도 사회적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마이크 리 감독의 <내 말 좀 들어줘>를 상영 후 임선애 감독, 강운정 문화평론가, 정지혜 영화평론가가 ‘마이크 리의 키친 싱크 리얼리즘의 세계’를 주제로 대담을 나누며, 올해 <동시대 시네아스트>로 선정된 셀 베이커 감독의 <테이크아웃> 상영 후 송경원 ‘씨네21’ 편집장, 오찬호 사회학자·작가, 정지혜 영화평론가가 ‘션 베이커의 유쾌하고 리얼한 세계’를 조명한다. ‘무주산골영화제’의 또 다른 토크 프로그램

<산골토크>는 영화 상영 후 영화 전문가에게 해설을 듣는 강연 형식의 토크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의 최신작 <베일리와 버드>와 제7회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인 ‘파알 카파디아 감독의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이 상영된다. 각 송경원 ‘씨네21’ 편집장, 김병규 영화평론가가 자리해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작품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관객들에게 영화로운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무주=전문서 기자

전북대 음악과, 바로크 실내악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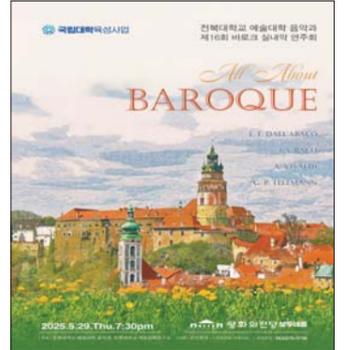
전주 치명자산성지 세계평화의전당 보두네홀서 개최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학과장 강효정)는 29일 오후 7시 30분 전주 치명자산성지 세계평화의전당 보두네홀에서 제16회 바로크 실내악 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대 예술문화연구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연주회는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전북대 음악과 교수이자 바로크 전문 연주단체 ‘알테무지크서클’의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 강효정 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학과 소속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달라바코(E. F. Dall'Abaco), 바흐(J. S. Bach), 비발디(A. Vivaldi), 텔레만(G. P. Telemann)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바로크 음악 특유의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음색과 고



풍스러운 분위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지역 문화 격차 해소’ 공연 성황

한국전기안전공사, 뮤지컬 공연 유치... 선착순 예약 하루 만에 매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 지역 사회공헌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최근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유치한 문화 공연이 성공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27일 오후 전북 완주군 분사에서 진행된 뮤지컬 공연 ‘6시 퇴근’에는 약 250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전기안전공사의 올해 ESG축제 첫 행사로 열린 이번 공연은 지역주민의 공연문화 접근 기회를 넓히고 수준 높은 공연예술작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전주·완주 지역 문화 공연 전수 조사를 진행해, 지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공연 장르를 추렸다. 이후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보고 싶은

공연 장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뮤지컬 공연’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뮤지컬 ‘6시 퇴근’은 직장인 일상 속 애환을 재치있게 풀어낸 작품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수도권 지역 무대에 오르던 공연을 그대로 유치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착순 예약은 하루 만에 매진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은 공연진을 향해 박수갈채를 보내며 호응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하영 사장은 “좋은 공연을 지역주민과 함께 볼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이번 뮤지컬 초청공연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문화공연 무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익산시, ‘독립의 꿈, 인화동의 이야기’ 교육생 모집

인화동의 오래된 기억이 무대 위에서 주민의 입으로 다시 살아난다.

익산시는 주민 참여형 낭독극 프로그램 ‘독립의 꿈, 인화동의 이야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송리마을 재도약의 꿈’의 일환으로, 익산시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과 함께 예술로 풀어내는 사업이다.

교육에서는 근대사 속 인화동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낭독극 창작·공연이 이뤄진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연극을 구성하고 무대에 오른다.

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단계별로 진행된다. 수업은 최근 문을 연 익산송리문화의 숲(주흥동 100번지) 2층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기초과정은 오는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금요일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는 신체 움직임, 발성·발음 등 연극의 기본기를 익히는 교육이 이뤄진다.

이후 심화과정에서는 인화동의 독립운동과 지역사 이야기를 바탕으로 직접 대본을 구성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활동으로 확장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화동 주민을 포함한 익산 시민이 주체가 돼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새롭게 표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을 통해 인화동의 가치를 외부에 알리고, 주민 문화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참여 인원은 10명으로 인화동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보석박물관, 순창서 순회전시 ‘천연보석 동물조각상’ 개최

익산시 보석박물관은 오는 7월 20일까지 순창군 순창발효테마파크 홍보관 로비에서 순회 전시 ‘천연보석 동물조각상’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시 장소인 순창발효테마파크는 연간 24만 명이 찾는 순창의 대표 관광지로, 발효 문화를 기반으로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시설이다.

이번 전시는 순창군민과 다른 지역 방문객들에게 익산시의 보석박물관을 알리고자 기획됐

다. 푸른빛의 해(을사년)를 맞아 아카마린으로 제작된 뱀 조각상을 포함해 총 88점의 보석 동물조각상이 전시된다.

작품은 말라카이트, 제스퍼, 아벤추린 등 다양한 천연보석으로 제작됐으며, 친숙한 동물 형태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다. 전시 공간에는 십이지와 뱀에 대한 설화, 속담 등을 소개하는 설명판도 함께 마련돼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익산=이재춘 기자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